

# 문학의 미적 자율성과 사회적 운동성의 대립 문제에 대한 고찰

김미영 \*

- I. 문제제기
- II. 문학의 본질1: 언어와 주체
  - 2.1. 문학의 언어
  - 2.2. 문학의 주체
- III. 문학의 본질2: 반영·재현·전유
  - 3.1. 반영(mimesis)에서 재현(representation)으로
  - 3.2. 재현(representation)에서 전유(appropriation)로
- IV. 문학의 본질3: 미적 자율성과 사회적 운동성의 변증법
  - 4.1. 매개로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 4.2. 리얼리즘 대 모더니즘의 대립을 넘어
- V. 결론

## I. 문제제기

근대이후 오랫동안 문학의 언어는 인간 숲의 향기와 바람, 그들과 생명력을 체험하고 사유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였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문학을 창안한 것은 아마도 그것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기억하고 사유하며,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일 것이다. 물론, 이야기 자체가 원래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발전해 왔을 문학이란 양식은, 일정한 삶의 시간을 우리에게 들려주되, 개념적 사유와는 달리, 정서적 감응에의 호소를 통해 인간의 사유를 진작시킨다. 인간의 삶은 시간의 연속이고, 이야기는 사건의 시간적 기억이다. 작가는 서사행위를 통해 실존적 시간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여 하나의 의미구조를 만들어낸다.<sup>1)</sup> 인간의 실제 삶 속에는 불일치가

일치를 압도하지만, 문학 속에는 일치가 불일치를 압도하는데,<sup>2)</sup> 이는 문학은 조작된 것, 즉 허구라는 증거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혼돈보다는 인위적인 질서를 좋아하고 형식이 주는 위안을 즐긴다. 잘 배열된 문학작품의 구조 속에서 인간은 불안을 잠재우고, 실존의 고뇌를 덜며, 삶의 의미를 해독한다.<sup>3)</sup> 또한 문학이라는 하나의 통합적인 역동체는 독자들에게 진리 발견의 즐거움과 더불어, 재미를 선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적 가치를 옹호하는 문학담론은 오랫동안 두 가지 뚜렷한 입장으로 양분되어 왔다. 다시 말해 한국 근현대문학사에는 ‘가치로운 문학’의 내용에 대한 생각이 다른 두 그룹이 있어 왔는데, 그 연원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시작된다.

일제시대 프로문학을 주장한 KAPF의 이론가들은, 장원유인이 문학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을 주장한 것처럼, 문학에 강한 정론성(政論性)을 요구하였다. 이 시기 문학에 대한 정론적 편향성은 당대의 정세인식이 세계혁명에 임박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KAPF와 ‘동시대를 산 문인’으로서, 이조차도 우리민족이 처한 시대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문학의 일반적인 본질은 아니라고 본 사람은 이광수이다. 1910년대 계몽적 지식인 가운데 이광수는 최남선이나 신채호와는 달리, 소위 ‘문학주의적’ 문학론을 주장하였다. 이광수는 “나는 계급을 초월한 예술의 존재를 믿습니다”고 당당히 말하고, 작가를 거미에 비유하였다. 그는 거미에게 명령할 수 없는 것처럼, 계급문학을 절규함은 비평가의 소리일 뿐, 큰 수익은 없으리라고 말한다.<sup>4)</sup> 이광수는 문학이나 예술이 정치나 계급의식 등에 종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광수 뿐 아니라 나도향도 “문학은 인생의 전부를 내놓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빨리니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1) 프랭크 커모드, 조초희 역,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문학과 지성사, 1993. 57쪽.

2) 폴 리피르,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지성사, 1999. 51쪽.

3) 엘리자베드 디플, 문우상 역, 『플롯』, 서울대출판부, 1984. 60쪽.

4) 1925년 2월에 『개벽』지 특집으로 마련된 “계급문학시비론”에서 프로문예운동측의 팔봉, 회월, 석송, 월탄에 맞서 이에 반대하는 측의 횡보, 나빈, 춘원, 김동인 등은 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한다. 이광수,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 『開關』 56호, 1925.2. 55쪽.

푸르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고,<sup>5)</sup> 염상섭 역시 “소위 예술이니 인생을 위한 예술이니 하지만 그 어느 견지로든지 예술의 완전한 독립성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sup>6)</sup>

민족주의 문학론자들 외에도 KAPF를 형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팔봉 김기진 역시, 1927년부터 1929년에 걸쳐 소위 ‘내용형식 논쟁’을 거치면서 결국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지 않아, 후대의 문학사가들에 의해 문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KAPF 형성 초기에 강경노선을 주도해온 회월 박영희도 KAPF가 불세비키화된 후인 1934년에 “잃은 것은 문학이요,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다”라는 유명한 전향선언을 남기고 문학주의로 회귀를 선언하면서 KAPF를 탈퇴한 사실은 너무도 유명한 일화이다. 문학의 사회적 운동성을 강조하였던 KAPF 내부에서조차도, 팔봉이나 회월의 예처럼, 처음부터 문학의 길을 걸었던 파스칼라계는 끝내 문학의 미학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sup>7)</sup>

‘가치로운 문학’의 내포를 규정함에 있어서 정론성을 띤 문학과 비정론성을 띤 문학의 분기는 해방과 한국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1960년대의 순수·참여논쟁, 7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민족문학논쟁,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96~97년에 있었던 리얼리즘·모더니즘 간의 논쟁 등에서 누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현되면서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문학의 미적 자율성과 사회적 운동성을 둘러싼 문학담론 내부의 오랜 입장차는 ‘문학’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아직도 분기가 뚜렷한 이 이분법적 대립의 지양 가능성을 문학의 본질적 특성인 언어와 재현, 내용과 형식의 관점에서 좀더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5) 나도향, 「빨르니 푸르니 할 수는 없지만」, 『개벽』 56호, 54쪽. 「藝術이란 좋은 意味로든지 나쁜 意味로든지 絶對로 拘束을 拒絕한다」, 『동아일보』, 1926.1.1.

6) 염상섭,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개벽』 56호, 52쪽.

7)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31쪽.

## II. 문학의 본질 1 : 언어와 주체

### 1. 문학의 언어

문학은 언어로 구성된 형상적 향유이자, 형상적 사유이다. 문학의 실체는 작가에게는 창작과정에서, 독자에게는 독서과정 중에 경험된다. 다시 말해, 문학을 통한 진리의 인식은 창작이나 독서 과정 중에 발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작가나 독자는 허구(비(非)진리) 속에서 진리를 캐어낸다. 진리는 마치 지층 속에 화석이 묻혀 있다가 발굴되는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문학적 재현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어진다. 진리는 창작이나 재현과정 전에 작가의 의식 속에 이미 존재한 것이 아니며, 현실 속에서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다. 재현된 특수자로서의 상황의 연쇄, 그 상황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혹은 그 과정이 만인의 이해 속에 있을 때, 진리는 스스로 얼굴을 드러낸다.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 길에는 문학과 같은 예술 이외에도 철학과 종교적 체험, 그리고 목상이 있다. 이 가운데 문학은 플라톤 이래 특히 철학적 인식과 자주 대비되어 왔다. 철학은 개념의 논리적 조작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고 사유를 진작시킨다. 반면 예술은 감각적 직접성으로 형상적 향유를 통해 진리를 발견케 한다. 특히 소설은 특정 상황의 연쇄 속에 놓인 개체의 경험치를 언어를 통해 재현해냄으로써, 감응이라는 감각적 직접성을 통해 개념으로는 말해질 수 없는 삶의 진실을 개시해주거나, 개념적 사유가 배제해 온 것들을 인식케 한다.

철학을 필두로 한 개념적 사유의 한계는 그간 많이 논의되어 왔다. 아도르노의 『계몽의 변증법』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책에서 아도르노는 개념적 인식이 지닌 동일화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원시인들은 미지이자 위협인 자연의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 이름 없는 자연에다 이름(개념)을 붙임으로써, 그것을 이름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키워갔다. 따라서 개념은 태생부터 동일성 사유의 도구로 전용되었다. '개념(Begriff)'이란 말은 원래 대상(실제)을 '꽂아 사로잡아서(혹은 장악해서: begreifen)' 자신에게 동화시키는 것을 일컫는다.<sup>8)</sup> 개념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사유는 개념 간의 체계와 연관 속에서 진행되므로, 사유가 진행될수록 개념은 대상의 질적 고유성으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개념이 대상을 매개한다고 해도, 그것이 동일화의 방식인 한, 근원적으로 대상을 본래의 성질대로 매개하지는 못한다. 개념은 자기 밖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용되었고, 대상을 자기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정함으로써 대상의 질적 고유성을 배제하거나, 혹은 부적합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범주에 대상을 폭력적으로 끼워 맞춘다. 개념에 의한 사유는 결국 삶의 대상들을 내용적으로 매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sup>9)</sup>

개념적 사유의 불충분성 자체가 바로 비개념적인 것의 존재를 요청한다. 문학이나 예술의 존재는 개념의 불충분성을 자각하며, 개념이 대상에 저지른 억압적 포박을 풀어낸다. 예술 혹은 문학은 개념적 인식을 정서적 감응이라는 감각적 직접성의 영역으로 훌쩍 뛰어넘는다. 삶 자체를 확실하게 인식하려면 무엇보다 삶 자체에 밀착하는 일, 즉 직접성을 되찾아야 하는데, 바로 그 감각적 경험의 직접성에 의존하는 것이 문학이며 예술이다. 사랑의 고통, 인간 사이의 소통의 어려움, 현대사회의 소외문제,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움직이면서도 각자 다른 셈수를 지닌 인간들의 내면 등을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실재하지만 각 개체의 주관적 경험의 영역에 속하는 비개념적인 것들을 개념적 사유는 말할 수 없다.<sup>10)</sup>

8) 철학이 불가피하게 개념에 의존해야 하고, 개념은 삶의 매개에 실패한 것으로 본 아도르노는 그러나 개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개념은 비개념적인 것을 부정하지만 비개념적인 것을 매개하는 것 역시 개념 자체의 몫이다. 개념의 문제는, 개념이 계몽의 역사 속에서 승리를 거둬줌으로써 스스로 걸려든 마법, 즉 동일성의 가상을 탈마법화할 수만 있다면, 개념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개념 자신의 고유한 속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비개념적인 것을 개념적인 것으로 매개하는 가능성은 열릴 것이라고 아도르노는 말한다. 유진경, 「아도르노 《부정적 변증법》에 있어서 개념의 자기극복의 문제」, 『미학연구』 제7집 (2002.12) 58-59쪽.

9) 개념적 사유의 극점으로 데카르트적인 사유체계를 꼽는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다. 데카르트는 확실성의 기반을 '사유한다는 사실'로부터 '사유하는 주체'의 개념으로 전이시켜 활동과정만이 아닌 실체로서의 정신을 확립한다. 그러나 데카르트적 사유체계의 문제점은 대상을 개념과 공리에 보다 완벽하게 종속시킬수록 개념은 대상과 더더욱 멀어지는 이율배반에 처하게 되어, 대상과 개념의 화해할 수 없는 대립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10) 개념적 사유의 영역인 철학에서도 개념이 비개념적인 것을 포괄할 수 없는

하지만 예술적 재현을 통해 그것들은 체감적 진실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예술 가운데 문학의 변별성은 단연 '언어'에 있다. 문학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무엇을 지각한다고 할 때, 지각과 대상은 무매개적이지 않다. 거기에는 언제나 언어가 끼어 있다. 한마디로 지각 자체는 언어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계 자체는 언어와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언어에 의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어는 물 자체나 현상 등 세계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언어를 표현수단이나 의사소통의 도구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언어관에서 비롯된다.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함'이라는 합리적 이성의 '논리'를 준수하는 '산문적' 언어만 의미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명석하고 논리적인 진술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은 애초에 사유가 아닌 것으로 배제하였다.<sup>11)</sup> 이런 언어관이나 사유는 '지도가 곧 현실 자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세계가 언어와 별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곧 세계 자체는 아닐 터이다. 세계와 언어의 관계에서 언표된 것은 언제나 언표되지 않은 것에 비해 너무나 적은 양의 정보이다. 이는 언어의 근원적인 한계이다.<sup>12)</sup> 즉, 언어로 사물 전체를, 혹은 대상 자체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이외에 달리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언

---

것은 아니다. 개념이 대상에의 친화성을 되찾아, 동일성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비개념적인 것과의 자유로운 유희의 계기로서 미메시스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개념이 미메시스적 계기를 회복할 때, 개념은 비개념적인 것, 예를 들어 고통을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개념적인 것을 개념이 서술하는 것은 결코 감성적이거나 직관적인 표현으로 휘발되지 않는다. 개념은 그 고유성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구성 계기에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기는 대상을 양적 동일성으로 재단하는 도구적 합리성이 아니며, 대상의 질적인 비동일성의 결에 따라 개념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11) 김정주, 「근대의 이성적 인간과 자기의식에 관한 연구 : 데카르트, 칸트의 자기의식 모델과 헨리히 투겐트하트의 해석」, 『범한철학연구』, 제31집, 2003.12. 179-202쪽 참조.

12) 리비스는 사유의 다양한 양식들 사이에 가로놓인 심연, 혹은 각각을 고립시키는 경계들에 주목한다. 리비스는 셰익스피어와 같이 뛰어난 작가의 언어구사는 이런 경계를 알지 못하는 포괄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리비스, *The Living Principle*, pp.97-99. 김영희, 「F.R. 리비스: 사유의 혼련으로서의 문학비평」,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93. 121쪽 참조.

어로 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결국 추상화 방식인 개념을 통한 철학적 인식과 구상화 방식인 재현을 통한 문학적 통찰이 상보적으로 작동될 때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문학의 언어는 데카르트적 언어로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플롯구성을 통해 개시한다. 문학의 언어가 갖는 특징은 그것이 어떤 현상이나 경험의 세계를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언표된 것의 지시적 의미 속에만 갇히지 않는다는 데 있다. 문학에서 그런 언어는 수인(囚人)의 언어가 된다. 벽을 향한 말이 메아리 없이 되돌아옴을 반복하는, 그런 수인의 언어가 된다. 문학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혹은 정신적으로 경험한 세계와 언표된 것 사이에 있는 깊은 단절의 간극을 메우면서 또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진리를 재구성해내는 독특한 언어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부분적이지만 유의미한 의미의 한 다발인 현실의 국면으로 다가간다.

문학은 언표된 허구로서 언표되지 않은 진리를 개시한다. 이때 진리는 총체적인 세계인식이 아니라, 삶의 켜 속에 무수히 존재하는 한 조각의 진리이다. 현실이 영원히 총체적인 재현은 불가능한 원천이라는 사실은 언어의 한계이자 문학의 근원적인 가능성이기도 하다. 언어로 누구도 현실을 온전히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적 재현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린다. 즉, 현실 자체의 무한함은 다층위의, 다국면의, 다관점의 문학적 재현의 영원한 토양이 된다.

## 2. 문학의 주체

문학 속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리얼리즘에 토대한 ‘전형성’ 논의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의식에 대한 존재의 선차성’을 옹호하면서, 인간 주체의 사회적 인식이 그가 속한 계급적·사회적·물적인 토대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는다.

이들이 강조하는 ‘전형성’ 개념의 인식론적 뿌리는 계몽적 근대성 담론인데, 그 핵심에 데카르트의 주체관이 있다. 언어관과 더불어 계몽적 근대성 논리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주체관이다. 그는 ‘근대적 주체’란 이성적이고 자율적 주체로서 ‘자기 확실성’의 논리로 세계를 인식한다고 본다.<sup>13)</sup> 이들에 의하면, ‘자기확실성(Selbstgewißheit)’의 존재로서

주체는 표상하는 자신이 자기와 자기에 의해 표상된 것을 항상 그 자체로 알기 때문에, 명석성과 판명성, 자기정립성은 이미 주체 자체에 내포되어 있게 된다.<sup>14)</sup> 이러한 근대적 주체 구성의 문제점은 ‘비인간과 비주체’인 광인/결인/부랑인/죄인 등을 배제함으로써 근대가 허용하는 ‘이성적 주체’의 내부를 완성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근대적 주체’는 사회(법/질서)로부터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성, 즉 통제된 자유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인간 정신에 각인시킨다. ‘근대적 주체’는 ‘훈련과 규율’ 속에서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권력에 의해 정신적·육체적인 ‘감시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데카르트 이래로 인식과 판단을 정초하는 사유 주체는 칸트의 계몽적 주체를 거치면서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달 속에서 사회학적 주체로 변모하게 된다.<sup>16)</sup> 사회학적 주체 즉, 노동하는 주체의 주체성은 역설적이게도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고 타자에 의해 주체성을 박탈당함으로써 인식적이고 실천적 정당성을 함유하게 된다.<sup>17)</sup> 따라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후기산업사회의 주체는 자신의 사회적이고 물적인 토대로만 환원되지 않는 특성들을 담지한 주체로 변모한다. 21세기의 주체들은 공동체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의 양면성을 추구하는 역사적 구성물로서 새롭게 재탄생한다.<sup>18)</sup>

리얼리즘 문학, 특히 리얼리즘 소설에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주체는 ‘근대적 주체’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근대적 주체가 가진 양면성, 즉 방어적 얼굴과 해방의 얼굴이라는 양면성을 담아낼 수 없는 주체의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날 문학 속에 등장하는 주체는 사회적

13) 윤효녕, 「주체 논의의 현단계 : 무엇이 문제인가?」, 윤효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1~14쪽. 참조.

14) 김종욱,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해체」, 한국하이데거학회 편, 『하이데거와 근대성』, 철학과 현실사, 1999, 135~140쪽.

15) M.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423~441쪽.

16) S. Hall. etc, 전효관·김수진 외 옮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320~385쪽.

17) 이종영, 『주체성의 이행』, 백의, 1997, 11~86쪽.

18) 박태호,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적 주체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42~43쪽.



물적 토대에 기초한 계급적 의지나 사회적 실천력의 소유자로서만 통합될 수 없다. 소설에 등장하는 ‘근대적 주체’의 양상은 때로는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성을 머릿속에 각인한 ‘근대적 주체’일 수 있고, 때로는 자본주의적 질서가 공고해지는 와중에서 억압되고 배제되어 ‘체계와 생활세계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면서, 중심부에서 밀려나 주변부에서 타자의 시선<sup>19)</sup>으로 주체성의 회복을 통해 ‘희망의 원리’<sup>20)</sup>를 예견하는 ‘근대적 주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소설이나 문학 속 주체를 이제 일면적인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다.<sup>21)</sup> 현실 속의 주체가 다층위의, 다국면의, 다관계의 진실과 진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문학 속의 주체 역시 복수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을 이야기한 맑스도 포이어바하가 역사과정에서 추상된 ‘고립된’ 개인을 설정하고 인간의 본질을 무미건조한 일반성으로서의 ‘유’(類, genus)로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질은 개개인에 내재한 추상물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총화라고 하였다.<sup>22)</sup> 이 대목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변증법적 인식의 단초를 제공한다. 결국 ‘계급적 주체’로서의 실천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개인을 경유하지 않은 사회적 제 관계는 문학으로 형상화될 수 없으며,<sup>23)</sup> 그 각각의 개인은 ‘계급적 주체’로만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요소의 복합체들인 것이다. 현실 또한 이제, 어떤 하나의 핵심이나 하나의 기본원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인간이건 현실이건 그것들을 형성하는 각각의 차원과 측면들이 뒤얽혀, 무한하면서도 생생한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문

19) A. Lemaire, 이미선 옮김,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7. 247~256쪽.

20) 블로흐는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며, “사고란 초월하는 행위”이고 “미래의 사항은 두려운 무엇과 바람직한 무엇으로 의식된다”고 봄으로써 희망이 “모든 ‘종결된 것’에 비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긍정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해석한다. E. Bloch, 박설호 옮김, 『희망의 원리-더 나은 삶에 관한 꿈』, 숲, 1995. 7~10쪽.

21) 이와 같이 현대소설의 주체가 일면적 정체성으로 고정되지 않는 다중적 정체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창래 리(Chang-rae Lee)의 《네이티브 스피커(Native Speaker)》(1995)에 잘 구현되어 있다.

22) 맑스, 『도이치 이데올로기』, 참조.

23) 방민호, 「미학주의, 그리고 그 밖의 우울한 풍경과 작은 가능성」,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창작과 비평사, 2000. 66-67쪽.

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다양한 층위와 다양한 국면의 것들이다.

신경숙의 『외딴 방』과 최인훈의 『화두』, 박경리의 『토지』와 이창래의 『영원한 이방인』 등은 각각의 방식으로 각각의 진실을 현전시킨다. 현실에는 그 모든 진실이 공존한다. 따라서 한 작가나 한 작품이 특정한 시기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도 현실도 하나의 본질로 쉽게 환원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의 개성과 자신만의 고유한 체험과 사유가 지시하는, 현실의 어느 차원과 측면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작가들의 개성과 그에 기반한 창조의 자유는 언제나 옹호되어야 한다.

개인들의 참된 개별성에 기초하여 현실의 어떤 특정 측면이나 부면을 참신한 표현과 탄탄한 상황전개로 성공적인 재현에 이르렀을 때, 그 내용이 당장에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거리가 있더라도, 혹은 ‘계급적 주체’로서의 의식적 선택이나 해석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은 현실과 무관한 문학이 아니다. 문학적 가치는 그것이 다룬 내용이나 재현에 드러난 작가의 세계관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문학의 문학다움은 오히려 재현과정이나 재현된 것이 사회학적 보고서나 정치적 입장표명, 혹은 시민운동의 포스터가 아닌, 바로 그 부분에 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삶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 작품의 주체의 형상화는 당과성으로 환원되지 않을 것이다. 작품 속에서 주체는 노동자라는 사회적 신분이나 위상 외에도, 개인으로서 그만의 정신세계와 경험, 욕구, 그리고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고유한 개인으로 일상을 산다. 그렇게 그려져야 등장인물 노동자는 노동자 일반을 대표하는 대명사로서가 아닌, 구체적으로 피가 돌고 살이 만져지는 인물로 살아날 것이다.

### Ⅲ. 문학의 본질 2 : 반영·재현·전유

#### 1. 반영(mimesis)에서 재현(representation)으로

문학을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개념은 아마도 ‘반영’일 것이다. 주지하듯

이, ‘반영(mimesis)’에 관한 인식은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작된다. 플라톤은 세상 만물은 이데아의 모조품이고, 이러한 세상을 모방한 시는 이데아의 모조품의 모조품으로 보았다. 그는 이데아가 진리를 담지하고 있다면, 시는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 떨어져 있다고 보았다.<sup>24)</sup> 그는 구상화 능력으로서 언어의 운용을 미메시스와 디에게시스로 나누었다.<sup>25)</sup> 후자는 소설에서 요약적 서술에서 주로 사용되며, 전자는 언어가 사물 자체에 직접,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서, 묘사와 대화 등, 직접화법적인 구체화 방식을 지칭한다. 미메시스는 디에게시스에 비해 보다 실제 삶에 밀착된 모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플라톤의 미메시스 개념을 이어받은 아우얼바하는, 시의 ‘모방’은 결국 삶의 모습들을 눈앞에 묘사함으로써, 현실을 해석한다고 보았다.<sup>26)</sup> 이러한 관점과 다른 미메시스 개념은 하이데거에 의해 제시된다. 하이데거는 모방이 진리를 향하고는 있으나, 바로 이 점이 모방된 것과 진리 사이의 거리를 이미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모방이란 모방된 것과 진리와의 유사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유사하다는 사실은 불일치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메시스에 기초한 문학 혹은 예술을 통한 진리의 재생산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하이데거의 미메시스는 데리다에 오면, ‘재현(representation)’이란 개념으로 발전한다. ‘재현’은 원래 플라톤의 ‘미메시스’ 개념의 부정적이고도 미진한 부분을 거두어내고, 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개념이다.<sup>27)</sup> 재현은 시적(문학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순수한 재현을 의미하기도 하며, 표상된 것을 반복, 재생산한다는 의미의 현전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대신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데리다는 ‘반영’이란 개념이 객관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작품에 선행하는 무언가의 존재가 현실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개념임을 지적한다. 반영은 이데아와 문학 간의 근접성과 간극을 동시에 함축하는데, 이 개념 자체

24)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외,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4. 201-235쪽.

25) Platon, 박종현 역, Politeia, 『국가』, 서광사, 1997. 199-200쪽.

26) 에리히 아우얼바하, 김우창·유종호 역, 『미메시스 ; 근대편』, 민음사, 1994. 275-279쪽.

27) 백낙청, 「로렌스와 재현 및 (가상)현실 문제」, 동아영어영문학회, 『동아영어영문학』, 제18집. (2002.8) 30쪽.

가 문학이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유일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영원히 아이디어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가짜임을 나타낸다. 아이디어와 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극이 아이디어에 대한 특정한 해석과 왜곡을 가져오는 잠재력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인식이 문학과 진리 간의 절대적 선후관계를 상정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데리다는 진리란 문학 이전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이룩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반영’이 아닌, ‘재현’이란 개념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성취를 가능케 한다. 재현을 통해 이룩되는 진리는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도저히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환상일 뿐이다. 재현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이다. 재현은 작품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통찰은 데리다 뿐 아니라, 바르뜨에서도 확인되며, 무엇보다도 ‘반영론자’인 루카치에게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sup>28)</sup>

## 2. 재현(representation)에서 전유(appropriation)로

‘반영’이나 ‘재현’이 아닌 ‘전유(appropriation)’라는 개념으로 문학의 형상화 과정을 설명한 사람은 바이만이다. 전유는 까간이 『미학강의』에서 말한, ‘미적 전유’에서의 전유(專有)를 말한다. 전유는 재현보다 주체의 작용이 개입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용어이다. 전유는 재현보다 ‘드러나면서 성취되는 관계’에 좀 더 초점이 가 있다. 원래 삶은 재현의 재현불가능한 근원이다. 문학은 미적 전유를 통해 한두 가지 사회이론의 층위로 쉽게 환원될 수 없는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 ‘전유’에 대해 백낙청은 로렌스가 「도덕과 소설」에서 반 고흐를 거론한 부분을 가져와 이렇게 설명한다. 전유란 고흐가 해바라기를 그릴 때,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해바라기로서의 해바라기의 생생한 관계를 시간 속의 그 살아있는 순간에 드러내고 또는 성취한다고 할 때의 그것”이다.<sup>29)</sup> 사진적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적 사

28) 차봉희, 「루카치의 반영이론-예술적 현실 반영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루카치의 변증-유물론적 문학이론』, 한마당, 1987, 51-101쪽.

29) 백낙청, 앞의 글, 32쪽.

실주의가 아닌, 인간과 그를 둘러싼 우주 사이의 관계를 그 살아있는 순간에 드러내는 일에서 관계란 예술가가 그의 작업을 통해 드러내고 또 성취하는 것이지, 작품 이전에 성립된 어떤 재현대상은 아니다.<sup>30)</sup>

반영에서 재현, 재현에서 진유로 이어지는 문학 형상화의 원리에 대한 인식은 결국 작가의 작품구현 이전에 진리치가 현실 속에 내재해 있는가, 아니면 작가의 마음속에 미리 간직되어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문학이란 창작과정을 통해 진리를 발견케 하는 과정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하이데거에게서 경청할 바가 있다. 그는 예술작품 속에는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가 일어나는데, 이때 진리는 대상이나 명제(주제) 혹은 재현물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를 해석하면, 문학은 사회를 반영하나, 문학은 현실로부터 직접 연역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된다. 예술작품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자의 존재를 열어준다. 여기서 열어줌이란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가 스스로를 작품 속으로 들어앉혀 작업 상태로 정립함을 의미한다. 예술은 진리의 '스스로 작품(작업) 속으로 들어앉힘'인 것이다. 반 고흐의 농부의 구두 그림에서 진리는 구두라는 도구적 존재의 드러남을 통해 농부의 일상적 노동의 고달픔과 숭고함 같은 '존재하는 것 전체'가 '탈은폐'의 경지에 도달할 때 작동되는 무엇이다. 문학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작품 이전에 현실 속에 존재했던 진리가 아닌, 작가가 작품 완성 이전에 작가의 머릿속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닌, 작품의 고유한 진리가 독자에게는 독서과정에서, 작가에게는 창작과정에서 스스로를 탈은폐시킨다.

#### IV. 문학의 본질 3 : 미적 자율성과 사회적 운동성의 변증법

##### 1. 매개로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문학 뿐 아니라 예술에 있어서 형식은 개별적인 요소들의 객관적인 조직화를 말한다. 형식은 능동적으로 미학 외적 기능들과 가치들을 작품에

30) 백낙청, 앞의 글, 17쪽.

서 조형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작품의 요소들을 질적으로 새로운 전체로 통합한다. 형식은 작품 가운데서 현상하는 모든 것을 조리있게 객관화하는 조직행위이며 그 결과물이다. 달리 말하면, 형식은 자신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말하는, 일관된 매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작품의 내적 구조는 형식과 내용의 상호의존적 매개를 통해 형성된다. 형식과 내용의 상호간 매개에 의해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 되고, 내용은 형식의 결정 가운데서 현현한다. “예술 작품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 내용이자 형식이다”<sup>31)</sup>는 아도르노의 명제는 이런 맥락을 갖는다. 변증법적으로 형식은 자기규정을 위한 내용을 필요로 하고, 내용은 작품의 조형적 구성, 즉 형식에 의존한다. 여기서 매개란 개념은 내용과 형식 간의 이분법적인 분리를 거부하고, 양자의 통일 가운데서의 차이의 존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예술적 형식들은 무시간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 오히려 예술의 형식은 사회적인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 정신의 형식들이다. 즉, 작품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는 ‘매개된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때문에 예술의 사회에 대한 본질적 관계는 작품 가운데서의 사회의 내재성이지, 사회 가운데서의 예술의 내재성이 아니다. 소재나 주제는 무매개적일 수 있으나, 형식은 그렇지 않다. 현실이 예술을 규정하지만, 이는 대상적 혹은 소재적 영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형식 가운데서 매개된 것으로서 이다.

사회는 예술의 형식 가운데서 나타난다. 모든 예술작품은 형식 고유의 논리성과 일관성에 의하여 그 자신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서 예술적 형식 법칙에 사회적 문제들은 스스로를 복종시키면서 스스로를 예술적으로 실현한다. 형식을 통해서 예술은 스스로를 비(非)예술로부터 구분한다. 형식은 외부의 경험적인 것에 대한 경계이다. 예술작품의 세계는 스스로를 예술 외적 현실로부터 구별한다. 그러나 이것이 예술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술 혹은 문학은 독특한 자신의 형상화 방식에 따라 자신을 구성하면서 물화된 사회와, 이 사회의 부정성에 대해 비판한다. 예술이나 문학은

31) 민형원, 「아도르노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생성론적 연구」, 한국비르너학회, 『비르너와 현대문학』, 11. 1998.10. 55쪽.

‘무엇을’의 부분으로 경험세계인 현실에 대해 직접 발성하지 않는다. ‘무엇을’로 환원될 수 없는 문학만의 고유성 때문에 문학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작가의 의지와 실천이 진리나 현실과 결합되는 매개로서 당파성 혹은 객관성이 작품의 가치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전유의 고유성, 작가마다의 ‘어떻게?’ 혹은 ‘얼마나 깊이?’ 라는 재현의 독특함과 통찰적 인식의 깊이가 문학성의 척도가 된다.

이는 마치 무수한 화가들이 목욕하는 여인들을 그렸고, 대부분의 작가들이 과일이나 야채, 꽃과 같은 것을 놓고 정물화를 그렸으나,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과 세잔느의 <사과>는 ‘어떻게’ 그렸는가에서 이전의 누드화나 정물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개척하고 있는 것과 같다. 피카소는 목욕하는 다섯 여인을 그리면서 동양적인 목조각에서 힌트를 얻어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다양한 시점을 한 화폭에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퍼스펙티브의 공존이라는 변화된 사회의 진실을 캔버스에 응변하였고, 세잔느는 사과를 그림에 있어 관찰 주체의 입장에서 벗어난 물(物) 자체의 존재를 보여주었다. 그림을 그릴 때 초보자는 대개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골몰하지만, 대가들은 새로운 회화의 탄생, 즉 자신의 개성이 묻어나는 ‘어떻게’의 탐색에 골몰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어떻게’에 대한 추구의 무한가능성은 문학 뿐 아니라, 모든 예술적 자율성의 근간이 된다. 그러나 자율성에의 추구가 곧 예술을 사회적 현실의 피안으로 유배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술의 자율성조차도 역사적이며 사회적으로 매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자율성이란 사회에 대한 미적인 것의 상대적 독립성으로서의 자율성이다. 각기 작품이 추구하는 미적 자율성의 의미를 사회적 제부분과의 연관 속에서 읽어내는 것은 비평가들의 몫이다. 예술은 오로지 자신의 자율성 가운데서만 경험적 세계, 역사적 현실에 대한 형상적 인식으로서 그 나름의 고유성을 갖는다.

## 2. 리얼리즘 對 모더니즘의 대립을 넘어

일반적으로 반영론에 토대한 리얼리즘론은 유물론의 기본 명제 즉, 인식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맥락을 전제한다. 유물론에서 인식과정은 사회적 존재와 주체의 의식, 이 양자의 상호작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의 상호과정이야말로 인간 실천의 총체라고 본다. 다만 전자의 선차성을 인정한다. 레닌에 의해 철학적으로 규정된 범주로서의 반영은,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서의 물질 개념에 대한 승인과 그것의 인식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를, 문학이라는 특수한 영역 속에서, 작품과 현실의 동일성에 대한 요구를 정당화시킨 범주로 변화시킨 것은 루카치이며, 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엥겔스이다. 하지만 루카치는 반영을 말할 때, 표피적 현실의 수동적 묘사를 배격하였다.

물질 혹은 현상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반영론은 데카르트적인 사유체계의 근간인 뉴턴의 물리학에 토대한다. 반면, 반(反)재현론적 흐름은 칸트의 감성론에 토대한다. 뉴턴이나 데카르트 및 라이프니츠는 모두 물체의 실재를 전제하고서 이와 관련된 공간과 시간의 본성을 규정한다. 반면, 칸트는, 시공간의 기원이 대상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자(경험자 혹은 관찰자)에게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순수이성비판』의 「감성론(Aesthetic)」에서 칸트는, 인간은 물 자체(thing in itself)를 알 수 없으며,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현상(現象, appearance)을 대상적 지식(objective knowledge)으로서만 인식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때 시공간은 직감의 형식(forms of intuition)으로서 현상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 요소가 된다. 칸트에게 시공간은 직감의 형식이므로, 감각기가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인 바, 여기서 빛의 존재는 시공간 감지의 근간이 된다. 실제 세계에서 개인마다 다른 시공간을 가지는 것도 그것이 인식자에게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관적 시공간의 동등성은 곧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가능케하는 기초가 된다.<sup>32)</sup> 이러한 사유는 결국 인식주체에 비해 물질의 선차성을 주장하는 유물론적 관점이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입장,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반영론을 부정하는 논리의 근간이 된다.

반영론을 신봉하는 비평가들은 당파성을 근간으로 하는 리얼리즘 문학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해방의 서사에서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문학에 있어서 당파성에 대한 규정은 각양각색인데, 대체로 이들은 “진리·현실·객관의 차원을 의지·실천·주관의 문체와 결합해내는” 매개,

32) 소광섭,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고찰」, 『과학사상』, 1994년 가을호. 통권 제8호. 6-27쪽.



즉 사회운동과 문학이론의 통합적 매개로서 당파성을 설정한다.<sup>33)</sup> 그러나 실제 작가들이 쓴 창작노트들을 보면, 이 같은 논리는 비평가들만의 논리임을 알 수 있다.<sup>34)</sup> 실제 소설 창작에 있어서는 작가의 의지·실천·주관이 진리·현실·주관과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 상황의 연계가 진리를 캐어내는 것이며, 거기에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다.

작가들이 창작할 때 묘사의 진실성이나 인물의 성격화 이전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플롯을 구성하는 상황의 연쇄이다. 백낙청은 로렌스의 장편 《연애하는 연인들》을 분석하면서, “전형적인 환경에서의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엥겔스의 표현도 ‘환경’(circumstances, Umstände) 대신 ‘상황’(situation)이라는 낱말을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sup>35)</sup>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상황의 전개와 인물의 성격화는 함께 진행되는 것이지만, 상황의 전형성이 보다 중요함을 일컫는 말이다. 작가의 세계관이나 등장인물의 의식은 플롯인 상황의 연쇄에 복속된다. 배경묘사조차도 서사의 전개, 즉 상황의 연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작가 특유의 문체가 불러일으키는 시적 환기력조차 서사의 일부를 이룰 때, 작품의 생명력은 감동으로 전환되어 독자를 진리의 발견으로 이끈다.

당파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문학이 사회적 실천으로서 갖는 의미를 중시한다. 그러나 예술 혹은 문학이 사회적 실천의 한 과정으로서 사회를 반영하는 방식은 문학과 사회의 직접적인 일치에 있지 않다. 문학이나 예술은 사회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역되지는 않는다.

문학논의에서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이냐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사실상 현실 사회의 비동시적인 것의 공존을 돌아본다면, 그 대립의 지양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문학담론의 출발점은 언제나 현실인데, 그 현실의 종합국면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문학의 임무라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는 시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모더니티적 요소와 포스트 모더니티적 요소가 불균등하게 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레드릭 제임슨과 같

33) 윤지관, 「해방의 서사와 세기말의 문학-다시 당파성을 생각하며」, 『당대비평』, 1997년 가을호. 265쪽.

34) 스티븐 킹, 김진준 역,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2002. 202쪽.

35) 백낙청, 「로렌스 소설의 전형성 재론」, 『창작과 비평』, 20권 2호, 1992. 84쪽.

이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일종의 상징체계로 이해한다면, 이 세 가지는 자본주의의 세 단계에 대한 각각의 문화적 우세종이 될 터이다. 하지만 이들 우세종은 현실 속에서 비지배적 요소들인 잔여적인 것과 공존한다. 일례로 제국주의의 시대에도 모더니즘이 우세적이긴 하나, 과거의 리얼리즘과 미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요소들이 공존하였고, 모더니즘의 계기로서 불완전한 근대화의 단계에는 근대화가 진척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공존 말하자면,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이 존재하기도 한다.<sup>36)</sup> 역사의 서로 다른 단계나 계기들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현실들의 공존을 블로흐는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simultaneity of the nonsimultaneous)이라 일렀고, 패리 앤더슨은 종합국면(conjuncture)이라 하였다.<sup>37)</sup>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상징적 행위로서의 예술이나 문학은 직접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하부텍스트(subtext)로서의 현실을 자신의 형식 속에 끌어들이므로써, 역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지닌 무한대의 풍부함을 각각의 독특한 방식으로 담아낸다. 어느 것이든, 그것들은 현실의 한 측면, 거기에 묻혀 있는 진실의 한 조각을 독자로 하여금 발견케 할 뿐이다. 하나의 작품이나 혹은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세계나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이르는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지난 시대의 이루지 못한 문학적 열망일 뿐이다.

## V. 결론

문학은 재미와 감흥을 통해 인간과 삶을 성찰케 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나 인생에 내재된 진리를 발견케 하는 언어적 구성물이다. 인간의 이야기가 개체의 경험을 통해 재현될 때 우리는 거기서 진리를 발견

36) 이경덕, 「근대성과 모더니즘-프레드릭 제임슨의 모더니즘론」, 『세계의 문학』, 89호. 민음사, 1993. 8. 236-7쪽.

37) 이경덕, 앞의 글, 239쪽.

하게 된다. 그 진리의 모습은 인간의 현실, 그 복잡다단함만큼이나 다양하다. 동일한 시공간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의 기억과 이해가 다른데, 하물며 다양한 시공간에서 다양한 상황의 연쇄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는 작가들마다의 동일한 문제의식, 동일한 관점, 본질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촉구하는 것은 폭력이다. 때문에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이냐는 질문은 창작 앞에서, 그리고 그 창작물의 향유 앞에서는 무의미한 논의일 뿐이다.

원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근대적 주체가 맞닥뜨린 세계와의 교호작용에 대한 미적 반영의 결과이다. 주체중심의 이성애 의해 시작된 근대는 그 내부에 '자율로서의 해방'과 '분화 및 분열로 인한 자기소외'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것이었다. 근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야말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본질적인 성찰의 기능일 것이다.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미적 자율성'을 견지하느냐, 예술의 '사회적 운동성'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미적 자율성을 포함한 근대적 자율성을 '해방'의 계기로 파악하느냐(리얼리즘), 혹은 '자기소외'의 계기로 파악하느냐(모더니즘)에 의해 구분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서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대립적 구도는 지양의 대상이 된다.

문학은 무한대로 풍부한 현실에 토대하는데, 현실은 어떤 하나의 핵심이나 기본원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인간이나 현실은 그것들을 형성하는 각각의 차원과 측면들이 뒤얽힌, 무한하면서도 생생한 실체이다. 때문에 문학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과 현실에 관한 진리는 다층위, 다국면의 것이 될 것이다.

진정한 문학의 '문학다움'은 문학이 정론적 담론이나 사회학적 이론으로 대체되지 않는 데 있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예술이기에 미학적 추구를 갖는다. 미적 자율성이건, 사회적 운동성이건 문학의 특정 기능이나 역할을 물신화하는 것은 풍부하고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현실로부터 문학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몰각한 주장이다. 문학담론은 정치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문제의 핵심에 대한 사유의 깊이와 폭에서 양자의 대립극복의 길은 열릴 것이다.

## 참고문헌

김영희, 「F.R. 리비스:사유의 혼련으로서의 문학비평」, 『비평의 객관성과 실천적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93.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김종욱,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해체」, 한국하이데거학회 편, 『하이데거와 근대성』, 철학과현실사, 1999,

나도향, 「빨르니 푸로니 할 수는 없지만」, 『개벽』, 56호, 1925.2.

나도향, 「藝術이란 좋은 意味로든지 나쁜 意味로든지 絶對로 拘束을 拒絶한다」, 『동아일보』, 1926.1.1.

민형원, 「아도르노의 리얼리즘론에 대한 생성론적 연구」, 한국뷔르너학회, 『뷔르너와 현대문학』, 11. 1998.10.

박태호, 김진균·정근식 편저, 「근대적 주체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1997

방민호, 「미학주의, 그리고 그 밖의 우울한 풍경과 작은 가능성」, 『비평의 도그마를 넘어』, 창작과 비평사, 2000.

백낙청, 「로렌스 소설의 전형성 재론」, 『창작과 비평』, 20권 2호, 1992.

백낙청, 「로렌스와 재현 및 (가상)현실 문제」, 동아영어영문학회, 『동아영어영문학』, 제18집. 2002.8.

소광섭,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고찰」, 『과학사상』, 1994년 가을호. 통권 제8호.

유진경, 「아도르노 《부정적 변증법》에 있어서 개념의 자기극복의 문제」, 『미학연구』, 제7집, 2002.12.

윤지관, 「해방의 서사와 세기말의 문학-다시 당파성을 생각하며」, 『당대비평』, 1997년 가을호.

윤희녕, 「주체 논의의 현단계:무엇이 문제인가?」, 윤희녕 외, 『주체 개념의 비판-데리다, 라캉, 알튀세, 푸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염상섭, 「作家로서는 無意味한 말」, 『개벽』, 56호, 1925.2.

이광수, 「階級을 超越한 藝術이라야」, 『開闢』, 56호, 1925.2.

이경덕, 「근대성과 모더니즘-프레드릭 제임슨의 모더니즘론」, 『세계의 문학』, 89호. 민음사, 1993. 8.

어종영, 『주체성의 이행』, 백의, 1997,

조만영, 「리얼리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학」, 『창작과 비평』, 1992년 여름호.

A. Lemaire, 이미선 옮김, 『자크 라캉』, 문예출판사, 1997.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외, 천병희 역, 『시학』, 문예출판사, 1994.

E. Bloch, 박설호 옮김, 『희망의 원리1-더 나은 삶에 관한 꿈』, 솔, 1995.

에리히 아우얼바하, 김우창·유종호 역, 『미메시스;근대편』, 민음사, 1994.

엘리자베드 디플, 문우상 역, 『플롯』, 서울대출판부, 1984.

프랭크 커모드, 조초희 역,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 문학과 지성사, 1993.

K. Marx, 『도이치 이데올로기』,

M. Foucault,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pp. 423~441.

S. Hall. etc, 전효관·김수진 외 옮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Steven King, 김진준 역,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2002.

Platon, 박종현 역, 『국가』, 서광사, 1997. 폴 리피르,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1999.

ABSTRACT

An Essay on A Coordination of Aesthetic  
Self-Regulation and Social Propaganda Work  
in Literature

Kim, Mee-Young

There are two groups that they insist wha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modern literature in Korea. The first group asserts the aesthetic self-regulation. The second group asserts social propaganda work is the best functio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find how to coordinate between two groups.

Language is the first base of literature. A real world is more complicated thing than the language expressed. The real world and any human being are inexpressible things. Realism is not confronted with Modernism. Literature is pursuit aesthetic liberalism. Literature is not a propaganda about social problems. Literature is constitute not human being but an Individual person's story. Literature is a kind of mimesis about social, but not directly.

So that the question of literature discourse is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literature should be changed to how to be deep and wide how to appropriate some subject or mood in literature language. Even though some critic choose one thing, more deeper think, more helpful literature.

**key words:** literature, language, mimesis, representation, appropriation, aesthetic self-regulation, social movement, realism, modernism, modernity, partianity.